

임실군, 신속 재정집행 박차

신속집행 점검회의서 186개 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논의 심 민 군수 "집행 가능한 사업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임실군이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심 민 군수의 신속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속에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이 이뤄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설상의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 부서가 국과장 책임하에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로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통해 부서별 주요 186개 사업에 대해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집행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토지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본·실시설계와 공정별 일정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민간으로 직접 지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분할 교부 예외 등 제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행정안전부 활용 지침·지방계약 특례에 따라 긴급입찰,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지, 수의계약 금액 확대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집행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행정에 임할 뿐만 아니라, 선금과 기성금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키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직접 신속집행 추진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설상의 부군수 주재의 신속집행 점검회의의 결과를 보고 받고,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특히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재정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 효과를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성남시, 자매결연 협약식

교류사업 적극 발굴·추진... 시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남원시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의장, 박광순 성남시의회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도시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행정, 경제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는 △4차산업 및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 △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 및 관광자원 활성화 △행정 우수사례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 남원시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 각각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손을 마주 잡은 결과물로서 앞으로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매도시 관계를 통해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 분야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양 도시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만큼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상생 관계가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습 침수 예방'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선정

쌍치·복흥면 2개지구 논콩단지

순창군이 농림부 배수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대규모 논콩 재배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떴다.

지난 23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 선정 결과, 순창군 내 쌍치와 복흥 두 지구가 선정되어 총 10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구축·재정비를 통해 배수 능력을 증대하여 영농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으로 전역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복흥 낙덕지구는 63억원, 쌍치지구는 39억원을 확보했으며, 군은 확보된 사업비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255ha 이상 노후된 농경지에 배수시설 교체와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5년도에 실시시설을 추진하고 26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이번 배수개선사업 선정을 계기로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이 겪는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계절에 상관없는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관련 시설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많은 영농현장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24년 공모사업 검토보고회 개최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 논의

남원시는 23일, 이순택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모사업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 방식을 자치단체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원시는 공모사업 대응능력 강화와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날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

부 예산분석을 통해 파악한 총 109건 총사업비 3,282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토대로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대응 공모사업으로는 △생활인구 거점센터 조성(100억원)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80억원) △윤봉중심시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250억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100억원) 등이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총사업비 333억원) △창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193억원)

△창년 보급자리 조성(80억원) 사업은 대신면 일원에 폐가를 활용한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사업간 전략적 연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시정 현안 해결과 성장동력 마련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상시 공모사업 발굴 체계를 유지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순택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편의증진과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타당성과 대응 논리를 보강하여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라오스 현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 실시

순창군, 라오스 현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 실시

순창군이 라오스 현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을 통해 지역의 농촌 인력난 해결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김영식 순창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순창군 대표단이 라오스 하사이퐁군(滂) 현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선별을 위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은 순창군과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라오스 현지 방문에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신체검사, 농업기술 수준, 근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내 지역 영농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면접심사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중점을 두었으며, 총 152명의 여성 후보자 중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

시하여 5.06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최종 30명을 선별했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한국으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비자 신청, 한국어 교육, 그리고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들은 오는 4월 초부터 한국에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순창군의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라오스 여성들에게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라오스와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으로 바뀐 영농철 인력난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던 농업인들의 시름도 율해부하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3월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역주민 및 남원시 소재 직장인 15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상담(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6개월 동안 건강상담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은 모집인원 총원 시까지(선착순 150명)이며, 최초 건강검진 후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1개 이상 보유한 자(질할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는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관련 미션을 부여받으며 미션 성공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건강진센터 방문이나 전화(063-620-7967, 7968)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내달 15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 점검

남원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도·점검반원을 편성하여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불시 방문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사항은 △무자격·무등록 영업 △자격증,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수수 △허위매물 광고 △그 외 불법 부동산 중개 영업 행위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